

# 盧 다음은... 정·관계 줄소환 '공포'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주에 '3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 주 후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를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분수령=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 수사팀은 1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4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각종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자료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면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 ■ '박연차 게이트' 3라운드 돌입

### 이번주중 盧 사법처리 방향 결정

검찰은 이와 함께 2006~2007년 권양숙 여사가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여사를 재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정·관계 인사 줄소환=검찰은 그동안 중수1과가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 수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와 별도로 중수2과 등에서 각종 로비 의혹 수사를 병행해왔다.

소환조사나 체포 등 밖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없었지만 언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밑 수사'는 진행해와 소환 준비는 마친 셈이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전직 국회의장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찰·경찰 상대 로비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기준을 정해 일정 액수 이상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달 말까 사건을 일괄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초긴장=임시국회라하는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여의도 정치권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방향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경우 혐의가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줄소환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가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까지 들어갈 경우 그 파장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요소 요소에 있는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주요 당직자까지 불똥이 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소환 조사를 받았던 한 나라당 박진,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되는 등 이번 달 수사의 고삐가 바짝 죄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홍콩 보건당국은 3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투숙했던 한 호텔을 봉쇄하고 종업원과 투숙객들을 외부와 격리했다. 보건당국의 관리들이 호텔에서 정체 불명의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캐나다 돼지 '신종플루' 양성반응

### 사람→돼지 첫 감염사례

캐나다 앨버타주(州)에서 돼지 200여마리가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요 외국 언론들이 캐나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돼지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앨버타 산 돼

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걸친 인체 감염에서 확인된 H1N1 바이러스와 같은 변종이라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신종플루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들이 최근 멕시코를 여행하고 지난달 12일 돌아온 주요 외국 언론들이 캐나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이런 감염 경로가 정밀검사에서 확인된다면 이는 인체에서 가족으로 옮

아간 첫번째 H1N1 감염 사례가 된다. 관리들은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던 농장 직원이 곧 회복했고 지난달 24일을 전후해 신종플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돼지들 역시 회복되고 있다며, 돼지인플루엔자는 종종 발생하는 농장 직원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농장 직원은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감염 경로가 정밀검사에서 확인된다면 이는 인체에서 가족으로 옮

## “검찰에 맡겨야” vs “구속은 안된다”

〈한나라〉

〈민주당〉

### ■ 盧 신병처리 여야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 방향이 이번주 후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맡기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구속 불가'를 주장하면서 여권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한나라당=검찰에 맡기라는 원론적 언급만 내놓을 뿐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 여당이 검찰 수사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검찰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중론에는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여권에 불어닥칠 역풍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검찰의 수사가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과 여권으로 방향을 틀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죄가 있으면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법적 대가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국익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 즉 여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기왕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에서 대해서도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 정권에 대해 가혹하지만 철저한 수사를 하고 살아있는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한국계 미 대법관 나오나

### 고흥주 예일대 학장 등 거론돼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계 대법관이 지명될 수 있을까.

워싱턴포스트는 2일 수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 한국계인 고흥주(64·미국명 해럴드 고·사진)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 내정자를 비롯해 10명의 인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예일대 로스쿨 학장인 고 내정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 “北, 핵무기 제조...배치 능력은 없어”

### 美 외교협회 보고서

북한은 이미 소량의 핵무기류를 제조했지만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최근 발간된 미국 싱크탱크의 한 보고서가 평가했다.

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선 '공격적인 외교'가 요구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윌리엄 페리 전 대북조 장관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무기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을 통해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핵폭탄의 1세대격인 '소량의 핵무기류(a small arsenal)'를 제조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 이어 2006년 10월엔 소규모 폭발력을 가진 핵장치를 실험했고 올해초에는 플루토늄 비축량에서 핵무기들을 제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러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2006년 10월 저성능 핵장치를 폭발시켰으나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p>1. 경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p> <p>2. 경매대상 부동산의 현황</p> <p>3.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p> <p>4.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방법</p> <p>5.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일정</p>	<p>1. 경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p> <p>2. 경매대상 부동산의 현황</p> <p>3.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p> <p>4.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방법</p> <p>5.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일정</p>	<p>1. 경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p> <p>2. 경매대상 부동산의 현황</p> <p>3.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p> <p>4.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방법</p> <p>5.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일정</p>	<p>1. 경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p> <p>2. 경매대상 부동산의 현황</p> <p>3.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p> <p>4.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방법</p> <p>5.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 일정</p>